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즉시 보도 가능

배포 : 2023년 9월21일(목)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계기

네팔 총리와 첫 정상회담 개최(9.21)

- 15년 연속 ODA 중점협력국인 네팔과 개발협력 지속 강화 -
- 내년 수교 50주년 계기 경제, 농업, 고용, 인적교류 등 협력 심화 모색 -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21(목) 오후 「푸스파 커말 다할(Pushpa Kamal Dahal)」 네팔 총리와 1974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네팔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발전소, 하수처리시설, 도로 설계·감리 사업 등을 통해 네팔의 인프라 확충에 적극 참여 중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對네팔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네팔이 15년 연속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되었으며 우리 정부가 한-네팔 친선병원 건립,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설립 등을 지원해왔다고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네팔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다할 총리는 한국이 오랫동안 네팔의 중요한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경제발전, 교육, 인적자원 개발 등에 큰 도움을 준 데에 사의를 표명하고, 앞으로 네팔은 한국과 관광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엔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경제, 농업, 고용,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